

# 국어 영역

6회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 독서 .....
- 문학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관절염은 두 개 이상의 뼈가 맞닿아 이루는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일어나며 관절 연골이 손상되거나 소실되는 질환을 일컫는다. 관절은 뼈와 뼈 사이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양 끝이 부드러운 연골로 감싸져 있고 그 주위는 활막이라는 섬유질 막이 둘러싸 활액을 분비하여 관절의 마찰을 줄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 이상이 생길 경우 관절 운동에 장애가 생기거나 통증이 발생되는데 관절염은 양상이나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이 점진적으로 닳아 없어져 활막에 염증이 생성되는 것으로 발생한다. 연골이 닳으면 관절면이 불규칙하게 변형되어 마찰이 커지고 결국 해당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원인에 따라 특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누어지는데, ㉠ 특발성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노화와 성별, 유전적 소인이나 특정 관절 부위의 반복 사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반면 ㉡ 속발성 퇴행성 관절염은 세균 감염이나 결핵으로 인한 관절 파괴가 발생한 뒤나, 심한 충격 혹은 반복적 외상을 입은 뒤에 발생한다. 특발성과 속발성 모두 주된 증상은 관절 부위의 통증이며 질환 초기에는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을 겪는 경향이 있으나, 관절염이 계속하여 진행되면 움직임과 무관한 통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연골 손상으로 마찰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관절 내에서 부딪히는 면들이 고르게 맞물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관절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관절경을 이용해 관절 내부를 세척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생한 연골의 염증성 활막 조직을 제거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이는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술 후 통증과 회복 기간이 다른 관절 수술에 비해 적고 짧은 편이다. 다만 이러한 관절경 수술도 관절염의 완전한 치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술의 효과가 오래 유지될 것인지의 여부는 환자 상태나 손상 부위, 일상생활 습관 등에 따라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주로 관절 활막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을 말하며, 이는 자가면역성 질환으로써 면역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염증성 물질이 분비된다. 면역 체계가 이상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 백혈구가 관절로 집중적으로 모여 활액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이로 인해 해당 부위가 붓고 통증이 유발된다. 이러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점차 자라난 염증성 활막 조직이 연골 및 뼈를 침범하여 관절 형태를 변형시키고 관절 운동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염증이 심장이나 폐 같은 주요 장기에 전이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치료에는 여러 약물이 동원된다. 소염제는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감소시키긴 하지만, 질환 진행 자체를 억제하지는 못한다. 이와 달리 항류마티스약제는 원인 인자로 지목되는 면역 기전과 염증 매개 물질을 차단하거나 조절함으로써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시킨다. 항류마티스약제로는 TNF, IL-6 등 대표적 염증물질을 봉쇄하거나 면역세포 간 상호 작용을 방해하는 생물학적 제제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역 억제제는 염증을 억제하는 동시에 면역을 전반적으로 낮추기에 잠복 상태인 질환이 다시 활성화될 위험이 있다.

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골은 불규칙한 관절면 사이에서 관절 운동을 돕는다.
- ② 활막은 연골 주위에서 활액을 분비해 관절의 마찰을 줄인다.
- ③ 관절경 수술로는 관절 부위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
- ④ 관절염이 지속되면 움직임과 무관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반복적 외상을 통해 활막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모두 해당 관절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특정 관절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관절염의 경우 활막 자체에는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속발성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활액의 과다한 분비로 발생한다.
- ④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질환의 진행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
- ⑤ 세균 감염이 원인이 되는 관절염은 연골 손상으로 마찰음이 발생할 수 있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연골이 닳아 발생한다.
- ② ㉡은 ㉠과 달리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 ③ ㉠은 ㉡와 달리 관절이 파괴된 후 나타난다.
- ④ ㉠과 ㉡은 모두 특정 관절의 반복 사용이 원인이다.
- ⑤ ㉠과 ㉡은 모두 활막 조직을 제거하여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4.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자가면역성 관절염을 완화하는 약물이다.

- (가) 소염제: 염증물질의 작용을 부분 억제하여 통증 및 부종을 완화  
 (나) 표적 합성: 과도한 자가면역 신호의 전달 경로를 표적으로 삼아 선택적으로 억제  
 (다) 스테로이드: 저용량 투여하여 면역 과잉 반응을 신속히 억제해 증상을 빠르게 호전

- ① (가)는 면역 반응을 차단하므로 관절염의 질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겠군.  
 ② (나)는 전반적인 면역은 억제하지 않아 잠복 질환이 활성화될 우려가 커지겠군.  
 ③ (다)는 염증성 활막 조직으로 인해 관절이 변형되는 것을 치료할 수 있겠군.  
 ④ (나)와 (다)는 모두 TNF의 발현을 억제하여 활액의 과도한 분비를 완화할 수 있겠군.  
 ⑤ (가)와 (다)는 모두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면역 체계를 조절하여 통증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겠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머니는 어머니의 부자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미친 듯이 대들었지만 모든 것이 그 친구의 뜻대로 되고 말았다. ㉠ 나는 지금도 우아하고 기품 있는 어머니의 그 부자 친구가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래도 그 친구는 우리를 거리로 내쫓지를 않고 전셋방을 하나 얻어 주었다. ㉡ 너는 고생해 싸지만 네 자식들이 불쌍해서 베푸는 동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의 친구들은 인형옷 만드는 집 아줌마진, 수억대를 주무르는 부자 친구건 모두 어머니에게 고생을 해서 싸다고 그랬었다. 그러나 죽어도 싸다곤 안 그랬었다.

어머니는 전셋방에 나앉은 후에도 도저히 자식들 공부를 계속 시킬 수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았다. 세상에, 개 돼지도 아니고 인두겁을 쓴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식 대학 공부를 안 시키겠느냐고 철없이 설쳤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디 가서 한푼이라도 벌 궁리는 안 하고 그저 공부 공부 하면서 전셋돈을 빼다가 오빠들 삼류 대학 등록금도 하고, 내 고등학교 등록금 하고, 그리곤 사글셋방으로 옮겨 앉았다. 그러나 학교고 뭐고 다 고만뉘야 할 날은 어김없이 왔고, 기어이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사천 원인 산동네까지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우리가 알거지가 됐다는 걸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고리타분하고 시척지근한 가난의 냄새에 발작적으로 진저리를 쳤고, 가난한 사람들의 끈질긴 생활력을 더러운 짐승처럼 징그러워했고, 끝내 가난뱅이하곤 상종을 안 했다. ㉢ 아무리 없는 것들이기로서니 아무리 상것들이기로서니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이런 굴속 같은 방에서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이런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살 수 있을까 하고 흥을 보았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우리 살림을 제일 더럽게 해서 우리 쪽 마루엔 설음질도 안 한 그릇들이 다음 끼니때까지 그대로 헤벌려져 있어 온 동네 파리가 살판난 듯 엉겨 붙게 내버려두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가난에 길들여지기를 한사코 거부했던 것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와 같이 지내던 ‘상훈’이 갑작스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느날 ‘상훈’은 ‘나’의 집에 다시 돌아온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내 방에 앉아 있는 게 아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나는 그가 비참하게 돼서 돌아오는 경우만 상상했지 이렇게 훌륭하게 돼서 돌아오는 경우를 전연 예기치 못했으므로 우두망찰을 했다. 잠시라도 어디로 도망갔다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면 뭔가 좀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웬일이야?”

나는 내가 들어도 내 목소리 같지 않은 가래가 걸린 듯한 잠긴 소리로 겨우 이렇게 말했다.

“응, 돈 갚으려고. 그때 그계 삼만 얼마더라?”

그는 은행원처럼 친절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말했다. 나는 내 속에서 꿈틀대던 정다운 것들이 영영 사라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지독한 혼란]이 왔다.

문득 그의 옷깃에서 빛나는 대학 배지가 눈에 띄고, 방바닥에 그의 것인 듯한 술이 두꺼운 책까지 눈에 띈다. 번개처럼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겁먹은 소리로 악을 썼다.

“㉣ 너 미쳤니? 너 기어코 도둑질을 했구나. 해도 왕창. 그리고 가짜 대학생짓까지. 너 정말 미쳤니?”

그러자 그계 다 나 때문인 것 같았다. 삼만 원 때문에 허구한 날 들볶은 나 때문인 것 같았다. 나는 더럭 겁도 났지만 심장이 찢하도록 감동했다. 그래서 나는 잔뜩 울상을 하고 그에게 안기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고상하게 거부했다.

“㉤ 여봐,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를 정신차리고 똑똑히 들어. 나는 미치지도 않았고 도둑놈은 더구나 아냐.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실 뿐이야. 아들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걸 걱정하셔서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 하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오라고 무일푼으로 나를 내쫓으셨던 거야. 알아들겠어.”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는 부자들이 얼마나 호강들을 하며 사나에 대해 아는 척하기를 좋아했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고, 인생의 온갖 열락이 돈 주위에 아양을 떨며 모여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가난뱅이짓을 장난삼아 해보는 부자들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

“㉥ 우리 아버진 좋은 분이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시. 자식들에게 호강 대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으셨던 거야. 덕택에 나는 이번 방학에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어.”

참 생각한다. 인형옷 만드는 집 아줌마가 텔레비전 연속극 애길 하면서,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산가 뭔가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이 생각한다. 아무리 연속극이라지만 구역질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가난을 뭘로 알고 즈네들이 희롱을 하려고 해.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할 바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㉔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제 어떤 가난이라고.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召命)이다.

“아버진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 동안 그 지독한 생활을 잘 견딘 걸. 그래서 친구분한테도 자식들을 그렇게 고되게 키우는 걸 권하실 모양이야. 실상 요새 있는 사람들, 자식을 너무 연하게 키우거든.”

맙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회에선 가난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㉕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중이네. 누가 그까짓 미국 말인가, 빈민굴 말일세 하고.

-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

5. 윗글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는 ‘부자 친구’에게 분노를 표출하였으나 결국 굴복하게 된다.
- ② 어머니는 자식들과 달리 ‘고생’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③ 어머니는 전세방에 살게 되었음에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
- ④ 어머니는 자식들의 ‘공부’를 중단시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 ⑤ 어머니는 그릇들에 ‘동네 파리’가 엉겨 붙은 모습을 보고 반감을 느낀다.

6. **지독한 혼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상했던 모습대로 인물이 돌아온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 ② 변화한 인물의 모습에 대한 ‘나’의 괴리감이 드러난다.
- ③ 예상치 못한 인물의 행동에 대한 ‘나’의 비판이 드러난다.
- ④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나’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⑤ 자신에게 냉랭하게 대하는 인물의 태도에 대한 ‘나’의 서운함이 드러난다.

7. ㉔~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에서는 갑작스레 떠오른 ‘어떤 생각’에 대한 인물의 부정적 반응이 드러나고 있다.
- ② ㉔에서는 다른 인물에 대한 인물의 추측이 드러나고, ㉕에서는 그 추측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③ ㉕에서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를 다그치고 있다.
- ④ ㉕에서는 다른 인물을 언급하며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㉔에서는 그 인물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 ⑤ ㉕에서는 자신이 얻은 가치를 언급하며 인물을 긍정하고 있다.

8. <보기>를 참고하여 ㉖~㉗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도둑맞은 가난」은 주인공 ‘나’의 시점에서 작중 상황과 인물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는데, 이때 서술자는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거나 다른 인물의 발화나 내면도 자신의 시선에서 서술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작중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적 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입할 수 있게 된다.

- ① ㉖: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는 작중 상황을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㉗: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발화를 독자에게 전해주듯이 서술함으로써, 독자는 작중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㉘: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발화를 자신의 시점에서 서술함으로써, 독자는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적 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㉙: 서술자가 가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직접 서술함으로써, 독자는 상황에 대한 주인공의 심리적 태도에 쉽게 이입할 수 있겠군.
- ⑤ ㉚: 서술자가 직접 목격한 인물들 간의 대화를 독자에게 전해 주듯이 서술함으로써, 독자는 작중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군.